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11. 14.(월) 06:00 ~ 23:00
- 상담건수: 665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부록」

-방송일시 : 2022. 11. 12.(토) 1R (09:05-09:57)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려운 경제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직장인, 소상공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세심하고 공감 가능한 진행을 선보이는 진행자도 칭찬하고 싶다. 특히 이날은 좋은 책을 소개해주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고, 조만간 방송에서 소개한 책을 구입해 읽어볼 예정이다.

○ 방송 제언(2명)

-프로그램명 : 「시사멘터리 추적」 ‘아무도 몰랐던 죽음들 - 아동 사망의 진실’

-방송일시 : 2022. 11. 13.(일) 1TV (20:10-21:00)

이날은 의문 속에 죽어간 아이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학대당하고 있었다. 아동학대는 집에 목격자가 없고 CCTV도 없으므로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방송에서도 딱히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않아 아쉬웠다. 참담한 실상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66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353	53	-	-	259	66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299	180	14	-	-	172	66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06	559	-	66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456	8	79	122	665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 편성 제언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멘터리 추적」 - 방송 제언 ○ 「역사저널 그날」 - 출연자 의상 제언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노래자랑」 - 방송(소개) 추천 ○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부록」 - 방송 호평 ○ 「주현미의 러브레터」 - 방송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전어’ 연락처 문의 33건 ○ 「2TV 생생정보」 - ‘메기매운탕’ 연락처 문의 29건 ○ 「아침마당」 - ‘출연자’ 연락처 문의 19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0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9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6건 ○ 「주파수」 문의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25건 ○ 「수신료」 문의 2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8건 ○ 「전화교환」 문의 14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2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주현미의 러브레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14.(월) 2R (09:00-11:00) - 주현미 씨의 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이다. 주현미 씨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진행이 마음에 들고,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선곡해주는 점도 만족스럽다. 특히 이날따라 선곡이 좋아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했다. 늘 다양하고 풍요롭게 선곡해주는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